

“국내 AI 인력 부족...미국의 절반 수준”

‘규제 완화·AI 생태계 조성 시급’ 주장 제기 한경연 “높은 연봉 지급 어려워 인력유출 많아”

국내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해 규제 완화와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에서 AI 관련 연구를 하는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전화·이메일 설문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설문 결과 AI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의 AI 인재 경쟁력을 10으로 볼 때 한·중·

일 3국의 AI 인재 경쟁력 수준은 각각 5.2(한국), 6.0(일본), 8.1(중국)로 평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AI 인재 경쟁력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중국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전문가의 말을 빌려 ‘국내에도 관련 인력이 배출되지만, 미국, 유럽, 중국행을 택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AI 인력이 수요보다 얼마나 부족한지를 묻자 가장 많은 20.7%가 ‘50~59%라

고 답했고, ‘70~79%·‘30~39%’라는 답이 각각 17.3%로 나타났다. AI 인력 부족률은 평균 60.6%로 필요인력 10명중 4명 밖에 충당되지 않는 셈이었다.

AI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으로는 ‘국내의 AI 석박사 채용’(89.3%·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작자 AI 교육’(75.0%),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46.4%)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국내의 AI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연구소 설립·인수라는 답도 각각 17.9% 나왔다.

한경연은 자체 조사 결과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모두 즉시 협업 가능한 연구진을 보유한 AI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AI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학 협력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AI 인재를 확보하고 사내 재교육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인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실무형 기술인력 부족’(3

6.7%·2순위까지 복수응답)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선진국 수준의 연봉 지급이 어렵다’(25.5%)는 이유가 꼽혔다.

‘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 및 교수 부족’(22.2%), ‘근로시간 등 경직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6.7%), ‘예산지원,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 부족’(6.7%) 등도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AI 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 인프라 확대’(37.8%·2위까지 복수응답), ‘기술혁신 및 신산업 창

출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21.1%), ‘AI 관련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의 AI 인재 육성 제도적 지원’(13.3%), ‘AI 인재 유치를 위한 근로환경 및 기업문화 조성’(12.2%) 등 순이었다.

한경연은 “세계적으로 AI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수준의 연봉 지급이 어려운 점도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한다”며 “AI 인재 육성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초·중·고교와 대학에서부터 기초교육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식물 뿌리 휘어 자라는 원리 밝혀

식물 뿌리가 흙 속에서 장애물을 만나면 휘어져 자라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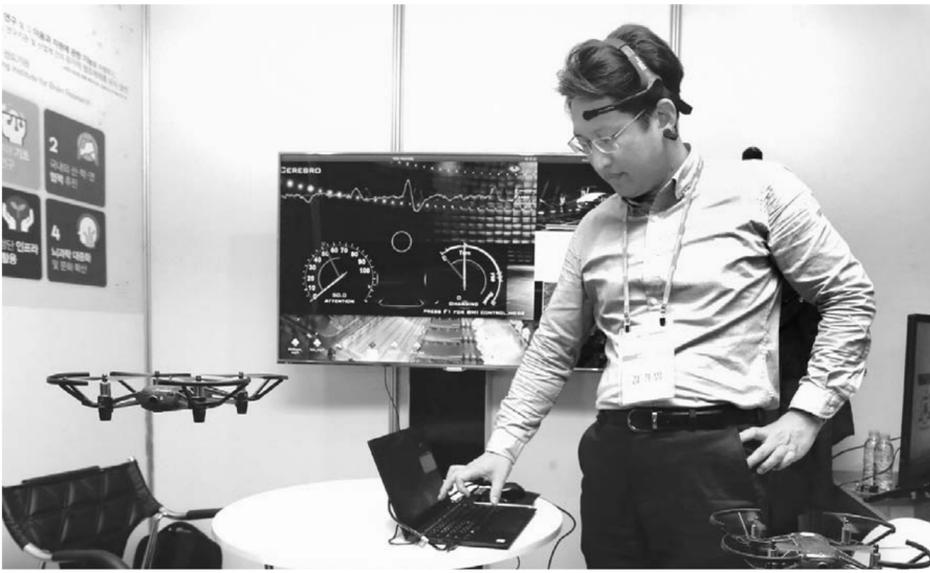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효준 박사팀이 식물 뿌리가 호르몬 조절을 통해 장애물을 회피하는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뿌리가 장애물에 닿게 되면 칼슘 신호가 발생하면서 식물 성장 호르몬인 ‘옥신’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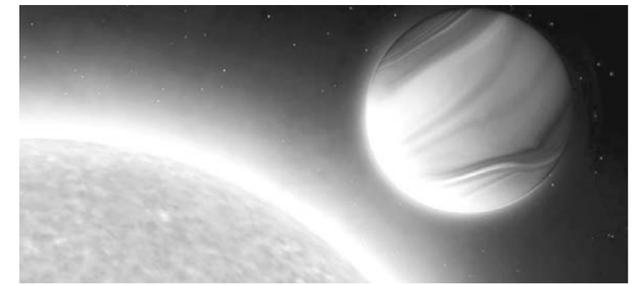
연구팀이 장애물(갑판)을 설치한 배지(培地·배양액)에 애기장대를 심은 결과, 옥신이 장애물로부터 먼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장애물에 닿은 지 1시간 이내에 첫 번째 뿌리 휘어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시간 이내에 두 번째 휘어짐이 발생하는데, 이번엔 장애물에 가까운 방향으로 뿌리가 휘어지게 된다.

실제 옥신이 걸려된 돌연변이 식물을 관찰한 결과 장애물 회피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합뉴스



뇌파로 조종하는 ‘뇌파 드론’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호텔에서 열린 ‘2019 바이오 미래포럼’ 한국뇌연구원 부스에서 김기범 연구원이 뇌파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이 드론은 설정된 값 만큼 집중도가 올라가면 특정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돼 있다. /연합뉴스



가스형 거대외계행성 상상도

물 있는 외계행성 많지만 물의양은 극히 적어

태양계 밖 외계행성 중에는 물을 가진 행성이 많이 있지만, 물의 양은 예상보다 크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천문학연구소의 니쿠 마드후수드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각각 다른 별을 도는 19개 외계행성의 대기 화학성분을 분석해 얻은 결과를 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 회보(Astrophysical Journal Letters)’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외계행성의 대기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5년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 중 가장 광범위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행성들은 지구 질량 10배 크기의 ‘미니 해양성’ 급부터 600배에 달하는 ‘슈퍼 목성’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표면 온도도 섭씨 20~2천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파라날 천문대의 초거대망원경(VLT) 등으로 수집한 광범위한 분광 자료와 컴퓨터 모델 등을 활용해 각 행성 대기의 화학조성(chemical abundance)을 밝혀냈다.

그 결과, 14개 행성의 대기에 수증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6개 행성에서는 소듐(나트륨)과 포타슘(칼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쌍각류 껍데기 화석 통해 공룡대멸종기 입증

소행성 충돌 이전 바닷물 수온·유독성 수은 급증 확인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은 약 6천600만 년 전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소행성이 떨어져 멸종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공룡뿐만 아니라 지구 육상 생물 종의 75%를 사라지게 한 이 대멸종(K-Pg 멸종)에는 소행성 충돌 이전에 이미 용암을 내뿜기 시작한 100만년 이상 지속한 대형 화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도 북서부에 ‘데칸 용암대지’(Deccan Trap)라는 거대한 흔적을 남긴 이 화산

폭발이 당시 지구 환경에 미친 영향을 글과 조개 등 쌍각류(雙殼類) 껍데기 화석을 분석해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시간대학에 따르면 포틀랜드 대학의 박사후 연구원 카일 마이어가 이끄는 연구팀은 쌍각류 껍데기 화석을 통해 데칸 화산 폭발 때 기온이 오르고 수은 오염도 심해졌다는 점을 확인한 논문을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데칸 화산이 엄청난 양의 은



시모어섬에서 발굴된 백악기 쌍각류 껍데기 화석

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해 연체동물, 특히 쌍각류의 껍데기 화석에 반영돼 있을뿐만 아니라 화산에서 분출된 수은도 축적돼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에 착수했다. 화산은 유독성 금속인 수은이 자연에 유입되는 가장 큰 통로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미국과 이집트, 스웨덴,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쌍각류 껍데기 화석의 탄소염 동위원소 구성을 분석해 당시 해양 온도를 측정하고, 동시에 껍데기 화석에 축적된 수은 농도를 잴다.

그 결과, 바닷물 온도와 수은 농도가 동시에 급격히 올라간 신호를 지구 곳곳에서 포착했으며, 그 시점이 소행성 충돌 이전으로 데칸 화산 폭발과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세돌과 은퇴대국 두는 ‘한돌’ 실력은

“그동안 빠른 인공지능(AI)과는 차원이 다른 게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넘지 못할 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세돌 9단은 2016년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3연패 후 1승을 거둔 다음 사석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당시 세상을 놀라게 한 이른바 ‘알파고 쇼크’ 이후 3년이 훌쩍 지났고, 이세돌은 은퇴 대국에서 AI와 다시 맞붙는다. 이번엔 국산 바둑 프로그램 ‘한돌’이 그의 상대다.

17일 NHN에 따르면 18일부터 3연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국에는 한돌 버전 3.0이 나선다.

기력(棋力)을 측정할 때 쓰이는 ‘Elo 레이팅’ 기준으로 한돌 3.0은 4천500을 넘는 것으로 NHN은 추산했다. 알파고는 3천700 정도, 인간 9단은 평균 3천500 정도로 평가된다.

NHN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보통 ‘알파고 제로’와 ‘알파제로’ 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 임동 성당 뒤 행복한 우리집 가구 2층

휴 · 돌침대 · 장농 · 소파 · 거실장 · 식탁 · 원목가구 · 사무용 · 업소용가구

HYUNDAI
LIVART

LIVART haum
사무용·주방가구·불박이장

LIVART Neoce
사무용·주방가구·불박이장

sidiz 사무용의자

대파 (주)대한OA퍼니처
OFFICE FURNITURE SYSTEM

EOS (주)이오스중역사무용

금실방 리퍼브 아울렛 전시장 1층

가구소품 · 선물 · 답례품 생활가전 · 생활용품 · 완구

GSB 금실방 062)525-2630

ALL KINDS OF FURNITURE